

사용금 수십만원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합리적 소비 유도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우리카드

신규 가입 시 최대 37만 환급
경품·무이자·정기결제 혜택도
자동납부·해외결제 캐시백 제공
숙박 플랫폼 제휴로 할인 확대

우리카드가 신규 가입 혜택을 확대하면서 소비 촉진에 나섰다. 카드사용금액을 수십만원씩 환급해주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숙박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객 수요도 확보 중이다. 이달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2’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 금액의 최대 37만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카드의정석2를 발급하고 우리원페이로 19만원 이상 결제하

자동납부 모아모아 캐시백 이벤트

전기요금, 가스요금, 학부모부담금, 구독서비스까지!
최대 5만원 캐시백 모아 드려요.

우리카드 자동납부 모아모아 캐시백 이벤트 행사 이미지.

면 19만원을 캐시백한다. 이어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는 매월 3만원 이상 결제 시 1만5000원, 자동납부·정기결제는 최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카드의정석 ▲텐 ▲에브리포인트 ▲에브리 디스카운트 등 3종 가입 고객은 최대 2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은 카드의정석2와 마찬가지로 우리원페이 결제금액과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정기결제 등록 시 차등 제공한다. 이 밖에도 화물복지카드+ 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15만원을 캐시백한다. 과거 카드모집인이 수당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영업방식이 카드사 주도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강화됐다.

경품추첨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카드의정석2를 10일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선물한다. 누적금액 1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준다. 사용 기준액은 하루에 2만원이다. 신용카드의 지속성을 높이면서



/우리카드

소비촉진 효과까지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납부 고객 전용 캐시백 행사도 있다. ▲배달 ▲렌탈 ▲통신 ▲모빌리티 업종 내 9곳 가맹점에 자동결제를 등록하면 건당 5000원을 최대 3만5000원까지 돌려준다. 이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학부모부담금 등 필수 지출 영역은 최대 1만5000원까지 캐시백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다. 백화점과 손해보험, 병원 등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부분무이자를 적용한다. 차량정비

와 가구·가전, 대학등록금 등 뭉치돈이 나가는 경우에도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철 특화 혜택도 마련했다. 아고다와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숙박 플랫폼 3곳과 협업을 통해 할인을 단행한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코드를 입력하고 결제통화를 미국 달러(USD)로 설정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 숙박업소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아고다와 호텔스닷컴이 10%, 익스피디아는 9%로 책정했다. 국내외 모든 숙소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휴가철을 앞두고 눈여겨보라는 조언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16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혜택으로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민생회복 쿠폰 12조 풀린다… 간편결제 3사, 고객 선점 전초전

1차 신청 대부분 온라인 집중 예상 포인트 적립·결제 편의성 개선 등 네이버·토스·카카오 마케팅 활발

간편결제 업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전초전에 나섰다. ‘12조원’ 달하는 소비쿠폰 발급액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간편결제사는 자사 앱을 통한 소비쿠폰 신청 시 혜택을 공개하고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선점에 힘쓰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간편결제 3사는 오는 21일부터 접수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1차 신청을 앞두고 사전 알

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자사 앱을 통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간편결제 앱 내 사용도 가능한 만큼 고객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소비쿠폰은 1차(7~9월)·2차(9~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금액이 지역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3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소비쿠폰에 할당된 금액만 12조2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지난 2020~2021년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과 지급 형태가 유사하지만, 사용처를 지역 내 중소기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네이버페이(Npay)·카카오페이·토스 등 사용률이 높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는 21~25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청 대부분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간편결제사는 자사 앱을 통한 민생쿠폰 신청 시의 혜택을 공개하고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선점에 나섰다.

네이버페이는 출생연도에 따른 신청일 알림 서비스를 오픈하고 자사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공될 혜택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민생쿠폰 발급 후 네이버페이 앱을 활용해 결제할 경우 자사의 결제 포인트인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별도로 적립해 준다. 또한 지역화폐나 타사 체크·신용카드로 민생쿠폰을 기발급받은 경우에도 앱 내에 정보를 등록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림 서비스와 별개로 수급대상 여부, 거주지 등을 기반으로 소비쿠폰 지급액을 예상하는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서비스를 자사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내에 오픈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소비쿠폰 지급 시 별도의 카드 없이도 자사 앱을 통해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머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지급 및 결제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토스는 알림 서비스 신청 시 기존 자사 앱 내에서 제공했던 신용·체크카드

비교 및 발급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했다. 카드 비교 페이지에서는 계열사인 토스뱅크 카드 뿐만 아니라 타 금융사의 제휴 카드도 함께 확인하고, 기존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수수료 등 수익성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용자 수가 중요한 간편결제 앱들에게는 신규 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간편결제의 영역이 온·오프라인으로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본 신청을 앞두고 추가 혜택을 공개하는 등 마케팅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용산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초고가 평형 수요 몰려

청약 최고 21대 1 경쟁률 기록
용산공원 조망 특화 유닛 관심

서울 용산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가 청약에서 최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94㎡ 이상 고가 평형에 수요가 쏠린 반면, 일부 중형 타입은 미달되며 온도차를 보였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청약에서 총 775실 모집에 1296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67대 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183·185㎡로 구성된 5군 펜트하우스 세대에서 나왔다. 2세대 모집에 42명이 몰려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94~105㎡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4군 역시 114세대에 395건이 몰리며 3.46대 1로 집계됐다.

이들 4·5군은 분양가가 가장 높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서 가림막



‘더파크사이드 서울’ 예상 조감도.

/일레븐건설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보장되는 ‘용산공원 조망 특화 유닛’이라는 점에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됐다.

반면 전용 70~84㎡가 포함된 3군은 30건 미달이 발생했다. 공급이 가장 많은 2군(전용 61~69㎡)은 263세대에 292건이 몰리며 1.11대 1, 1군(전용 53·56㎡)은 162세대에 363건이 접수돼 2.24대 1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고급 오피스텔 특성상 청약 자격이 제한적이고, 애초에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망성과 희소성을 갖춘 평형대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일레븐건설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복합개발 단지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첫 프로젝트다. 지하 7층~지상 20층, 총 11개 동 775실 규모다.

전 세대에 독일 슈코 창호와 몰테니 다다 키친, 인공지능(AI) 로봇 발렛 주차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모든 평형에 1.2m 폭의 오픈 발코니도 설치된다.

특히 전용 105㎡는 약 6평 규모의 대형 발코니가 정면에 배치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거실·안방·작은방 모두에서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다. 분양 관계자는 “이는 나인원한남 80평형보다도 더 크게 빠진 구조”라며 “개방감과 조망 측면에서 희소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어메니티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가 직접 운영하며, 단지 내 상업시설은 신세계백화점이 전용면적 1만6470㎡ 규모로 기획·운영한다.

분양가는 전용 56㎡ 기준 34억6000만원, 74㎡는 45억9600만원, 105㎡는 78억8200만원으로, 공급면적 기준 평당 약 1억4000만원, 실사용 기준 평당 약 2억원대다. ‘6·27 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 계약은 20~21일 이틀간 진행된다.

/전지원 기자 jiw13@

KB국민은행 스타뱅킹 환전서비스 직관적으로 전면개편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환전 신청 페이지 내에 ▲환율정보 ▲부가서비스 혜택 ▲보유 외화금액 등 환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UX/UI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오는 8월 29일까지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의 가치를 높이다! 항공 마일리지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스타뱅킹에서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혜택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환전 금액 구간에 따라 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